



## 간경변의 원인과 증상

이 동 후

간경변이란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간내부에 섬유질이 많아지면서 간이 살아 남기 위해 재생되는 간세포들이 크고 작은 결절을 만들어 나가는 결과이다.

간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간세포와 만나게 되는 곳은 미세한 동굴 같이 생긴 유동의 벽이며 이 벽에 뚫려 있는 수많은 구멍들을 거쳐 영양분이나 호르몬 그리고 산소가 간세포에 공급된다.

이러한 유동의 벽과 간세포 사이의 공간을 디ছে씨 공간이라 부르

는데 간세포의 앞뒤 마당적인 바로 이곳에 끈적끈적한 아교질이 많아지면 혈액 유통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광케이블이나 실타래를 닮은 섬유질이 블록 담을 쌓아 유동 벽의 구멍들을 틀어 막게되는 과정을 섬유화라고 일컫는다.

영양 보급로가 차단된 간세포는 숨마져 못쉬게 되는 결과를 빚어 마침내는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간이 재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운명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살아 남으려는 나머지 간세포들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B형 또는 C형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콜성  
간질환이다.**



의 부단한 세포분열과 함께 간세포를 드나들 수 없는 피의 흐름이 옆길로 빠져 나가는 미세 혈관 변화를 통해 주인의 생명이 지탱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간경변이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간세포의 파괴와 섬유화에 따른 다이나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간경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B형 또는 C형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콜성 간질환이다. 대사 장애성 침착 질환인 윌슨씨 병에서는 선천적으로 구리의 과다침착이, 그리고 헤모크로마토시스에서는 철분의 과다침착이 각각 간경변을 초래하지만, 알파-원-안티 트립신은 오히려 모자랄 경우 간경변을 일으킨다.

간으로부터 담즙이 배설되는 경로에 정체현상이 오래 지속되어도 간경변이 올 수 있다.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에 부분적인 막힘이

있어도 간경변이 생기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울혈성 심부전증과 같은 심장병이 오래가면 흔히 간경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영양 결핍증이나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도 간경변이 초래될 경우가 많다.

A형 바이러스성 간염과 E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급성 간염에 그치고 만성화되지 않아서 간경변을 일으키지 않지만, B형과 C형 및 D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만성 지속성 간염이나 만성 활동성 간염 혹은 만성 소엽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간경변이 초래되기 쉽다.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간경변이 오는 까닭은 감염 간세포들에서의 바이러스와 B 림프구 및 T림프구 간의 치열한 공방전 때문이며 그 결과로 간세포 파괴의 간 섬유화가 거듭되면서 빚어 놓는 후유증으로 간경변이 초래된다.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려있는 사람이  
자주 술을  
마실 경우, 간경변이  
빨리, 심하게 초래될  
수 있다.**



간경변으로 운명한 사람이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간경변에 잘 걸리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형제들 간에 접촉의 기회가 많아 그만큼 수직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며, 성장하면서 바이러스가 잠복 서식하고 있다가 청장년에 이르러 만성 간염을 일으킬 때 이들의 면역학적 감시체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변으로 3대별 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다국적 술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술의 소비량 및 음주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루 소주 2함에 해당되는 알코올을 5년이상 매일 마신 사람에서 지방간은 거의 대부분 찾아 볼 수 있고 절반 이상이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을 나타낸다.

알코올은 그 분해 효소와 중간 대사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유전적 장애에 따라 개체별

감수성을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분해대사 효소들이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어 일종의 화학적 저산소증에 빠져 가뜩이나 지방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는 섬유화 반응이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로 간경변을 일으킨다.

특히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알게 모르게 걸려 있는 사람이 자주 술을 마실 경우에는 간경변이 빨리, 심하게 초래되기 쉽다.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는 또한 당뇨병을 흔히 동반하고 있어 각별한 섭생 관리를 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간경변은 재생된 간의 기능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간세포들의 절대수에 따라 증상과 예후가 매우 다양하다. 정상외 70% 이상에 해당되는 기능을 발휘하면 피로, 권태, 식욕부진, 소화장애와 함께 메스꺼움이나 방귀가 잦음을 느낀다.

**간기능의  
총체적인 판단은  
각종 검사에 의거,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정상의 50 내지 70%사이의 간 기능만 갖출 정도가 되면 피로의 정도가 심하고 늘 몸살이 떠나질 않은 것 같은 피로유에 시달리고 잇몸에서 피가 쉽게 나며 멍이 잘 들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배가 불러오거나 발등이 붓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때 증상을 개선해보려고 보약 이다 건강식품이다 해서 몸에 좋다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먹게 되면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 눈과 얼굴이 노랗게 되고 소변색이 짙어지며 복수가 심하게 찰 수가 있다. 설상 가상으로 위장출혈이나 식도정맥류 파열이 있으면 그 출혈이 쉽사리 멎지 않을 뿐더러 간성 혼수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정상의 30%이하에 해당되는 간 기능만 겨우 유지할 정도라면 극히 치명적인 위독한 상황이다. 이와같은 간기능의 총체적인 파악은 전문

의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일반적인 간기능 검사로 이용되는 GOT, GPT가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간경변증 환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얼굴에 실핏줄들이 나타난다는 것, 얼굴이나 목과 가슴 또는 손등의 붉은 반점, 손톱이 곤봉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 손바닥이 붉어진 경우와, 황달이 생긴 경우 등이며 이와 같은 것이 없어도 늘 피로에 시달리면 간경변의 초기 짙은 한번정도 의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은 문맥합 상승에 의한 식도 정맥류, 복수, 간성 혼수, 자발성 복막염, 간-신 증후군 등이며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란 다름아닌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조치와 그 처치를 목표로 한 것이다.

〈필자=한양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과장〉